

“제주 축제 체험하며 음식 맛보세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도관광협회 참가 홍보전
여행종합쇼핑몰 ‘탐나오’
축제 콘텐츠 알리기 주력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제주여행 팁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한일 갈등 이후 국내 여행객들의 일본 여행이 줄기는 했지만, 그 수요가 제주 관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창보 제주도관광협회 수도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장은 16일 “내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자제하면서도 제주보다는 동남아를 택하는 것 같다. 내국인들의 제주행 증가세가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박람회에서 제주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해 우도, 추자도, 가파도 등 제주도내 대표 부속 섬 홍보와



제주도관광협회는 15-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하반기 제주축제 알리기에 주력했다. 사진=도관광협회 제공

더불어 제25회 서귀포 칠십리축제, 제58회 탐라문화제 및 2019 제주음식박람회 등 하반기 주요 축제 홍보에 나섰다.

또 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제주여행종합쇼핑몰 ‘탐나오’ 홍보에도 주력했다. ‘탐나오’는 항공, 숙박, 렌터카, 관광지·레저, 특산물·기념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관광객들에게는 저렴

한 가격과 편의성을, 제주 관광업계는 여타 인터넷 업체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상생하는 사이트다.

장혜리 도관광협회 온라인 사업실 홍보마케팅 팀장은 “도내 관광사업체들이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서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광고비나 판매수수료가 많이 든다. ‘탐나오’는 도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홍보와 예약·판매를 할 수 있다”며 “마을 체험 등

관광 콘텐츠도 특화돼 있고, 다양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행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15-18일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콘텐츠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확대를 이루고, 동시에 국내외 참가객 및 바이어들에게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부미현기자

케미컬운반선 침수사고
해경, 선원 13명 전원구조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운행 중이던 케미컬운반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선원들은 전원 구조됐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6분쯤 제주도 남서쪽 144km 해상에서 케미컬운반선 S호(1833t·한국선적·승선원 13명)에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했지만 원인을 알수 없는 침수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헬기를 급파해 환자 포함 선원 10명을 구조하고 3012함 고속단정으로 나머지 3명을 구조했다.

또 S호에는 병커C유 90t과 경유 20t이 적재돼있어 해경은 에어버트 폐쇄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S호는 15일 오후 4시쯤 중국 난통을 출항해 여수로 이동 중이었으며, 승선원 13명 중 한국인은 8명, 미얀마인 5명이다.

김현석기자

서귀포 산모 10명 중 7명 제주시서 출산

서귀포의료원 관내 분만을 2016년 15%→ 작년 30%
산후조리원 개원후 분만 늘었지만 제주시 선호 여전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산모 10명 가운데 7명은 제주시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개원 후 관내 분만율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제주시에서 출산할만큼 서귀포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18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2018년 시 출생아 1063명 중 의료원 분만은 324명으로 30.5%의 관내 분만율을 보였다. 서귀포시에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하다.

서귀포시 관내 분만율은 2015년

6.8%(출생아 1236명 중 84명), 2016년 14.6%(1266명 중 185명), 2017년 20.6%(1217명 중 251명)에 견주면 상승 추세다. 서귀포시가 2014년 보건복지부의 분만의료취약지로 선정되면서 서귀포의료원이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아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시작했고, 2016년 4월에는 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13실)이 개원한 영향이다. 앞서 2013년 서흥동에 개원한 전국 최초의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14실)은 2017년 1월부터 서귀포의료원이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분만한 산모의 공공·부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7년 70.5%, 2018년 74.7%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산후조리원 가동률은 의료원 부설이 2017년 60.4%, 2018년 74.5%로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은 53.3%에서 47.7%로 감소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64.0%, 2016년에는 80.5%의 가동률을 기록했지만 의료원 부설 조리원이 문을 열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 관내 분만 324명 중 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185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57명이었다.

산후조리원 개원 전과 비교하면 서귀포시 관내 분만율은 상승했지만 산모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제주시에서의 분만을 선택하면서 시간·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문미숙기자

17일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제주, 한반도 평화여정에 앞장설 것”

4·3해원방사탑서 추도식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제주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는 17일 제주시 신산공원 4·3해원방사탑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제주도민 추도식’을 개최했다.

>> 사진

이날 추도식에서는 김대중 제주도의회 의장과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이석문 제주시도교육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묵념, 연희보고, 추도사, 분향과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장에는 생전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기도 했다.

추도사에 나선 박희수 이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떠난 지 10

년이 된 올해는 남북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권이 외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꿈꾸는 일본 아베정부의 무역도발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물리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아쉽다. 항구적인 남북평화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받들어 다시 한번 평화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원희룡 도지사의 추도문을 대독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걸었던 평화와 인권의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제주4·3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는 것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염원했던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제주가 앞장설 것”고 약속했다.

송은범기자



처서 앞둔 제주 무더위 꺾일 듯

말복이 지나고 처서를 앞둔 제주지방은 이번주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주초인 19~20일은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이 곳에 따라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도 한풀 꺾여 30℃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반인 21일에는 제주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후반인 22일부터 구름 많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역시 낮 최고기온은 30℃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예상되지만 처서인 23일이 지나면 아침 저

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